

개념 노트 1.3



개념과 기출

개념 노트를 듣는 너에게

너의 선택이 단순히 클릭 한 번일 수도 있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해 줘서 고마워. 이것이 절대 짝은 인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게. 이 강의를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수능 모의 기출 문제를 토대로 개념을 귀납적으로 정리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중에 많은 개념 교재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개념을 다루지 않거나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 교재를 만들게 되었어. 그동안 이 강의를 통해 수 년간 아이들과 함께 해 왔고 또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준 나름 탄탄한 강자야. 너도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준다면 선생님도 네 기대에 부응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인강에 수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선생님을 선택해 줘서 너무 고맙고,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 너에게 혼동을 준다면 불필요한 개념을 설명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게. 2017년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완주하자. 너를 믿고 오늘도 펜을 잡자. 파이팅!

너의 옆에서 국어강사 박정범

하나. 시

시

학습 목표

- 개념은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

[목 차]

1. 관점
2. 시 해석 방법
3. 화자의 정서, 태도
4. 시어의 의미
5. 운율 형성 방법
6. 이미지
7. 화자와 청자
8. 대화, 독백, 말 건네는 방식
9. 표현법 (비유)
10. 표현법 (강조, 변화)
11. 객관적 상관물
12. 감정 제시
13. 시상 전개 방식 1
14. 시상 전개 방식 2
15. 거리감
16. 관념과 구체



memo

개념 05. 운율 형성 방법

Tip. 운율의 기본은 반복이다. 반복되면 강조와 운율 형성! 꼭 기억하자.

1. 음보율 : 끊어 읽기 반복

음보율은 3음보와 4음보 딱! 2개만 기억해라. 수능에서는 내신과 다르게 3음보냐, 4음보냐를 묻지 않는다. 대신 '음보율이 규칙적으로 드러나는가, 규칙적으로 드러나지 않는가'를 물어볼 뿐이다.

3 음보 : ∨ ∨ - 고려가요
(=민요적 율격, 전통적 율격)

4 음보 : ∨ ∨ ∨ - 시조, 가사

2. 음수율 : 글자 수 반복

음수율의 종류는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사용되는 음수율만 기억하도록 하자. 3(4)·4조와 7·5조는 우리 시의 주를 이루는 음수율이며 **참고로 3(4)·4조는 4음보와, 7·5조는 3음보와 자주 호응해서 사용된다.**

3(4)·4조 : 천만 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은 님 여히옵고,
내 마음 둔 덕 업서 냇³의 안자시니,
져 물도 너 은 곳⁴혀 우러 밤길 네놓다.

7·5조 : 그림다 /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같까 /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3. 음위율 :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음운 반복

음위율에는 두운, 요운, 각운 따위가 있다. 수능에서는 각운을 자주 물어보며 흔히 종결 어미 반복이라고 한다.

각운 :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4. 반복법 :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시어 반복 - 한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
시구 반복 - 두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
시행 반복 - 한 줄을 반복하는 경우

※ 변용 및 변주 : 반복할 때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것이 되풀이 되면 변용 및 변주라고 표현한다.



5. 대구법 : (동일한/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통사 구조 반복

반복법과 달리 대구법은 문장 구조 즉 문장 성분이 반복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사, 어미를 통해 대구법이 실현됐는지를 파악한다.

6. 음성 상징어 : 의성어, 의태어 사용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음성 상징어는 운율뿐만 아니라 생동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7. 수미 상관 : 처음과 끝을 반복하는 구조

처음과 끝이 반복되는 구조로 수능에서는 처음과 끝을 반복하려는 작가의 의도만 보이면 모두 수미 상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8. 율림소리 사용 : ㄴ, ㄹ, ㅁ, ㅇ을 자주 사용하는 방법

율림 소리를 자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부드럽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9. AABA 구조 : 동일한 내용(A) 사이에 이질적 내용(B)을 추가하는 방법

10. 시적 허용 : 단어를 늘리거나 줄여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글자수를 맞추기 위해 글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memo

개념 적용)

1. 다음 글을 읽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율을 형성했는지 써 보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2. 다음 글을 읽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율을 형성했는지 써 보자.

머연 산 청운사(靑雲寺)
냇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 가는 열 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 박목월, 「청노루」 -



3. 다음 글을 읽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율을 형성했는지 써 보자.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갯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너머 산 너머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너머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앓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
이 나는 싫어.....

- 박두진, 「해야 솟아라」 -

4. 다음 글을 읽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율을 형성했는지 써 보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폴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불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시(詩)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머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

5. 다음 글을 읽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율을 형성했는지 써 보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 장송 되야 이서
백설이 만건곤할 때독야청청 하리라

- 성삼문, 「이 몸이 죽어가서」 -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학년도 6월]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

6. 읊절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학년도 9월]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새여
 ㉠날으는 새여

- 김지하, 「새」 -

7.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3학년도 수능]

(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나)
 향이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련만
 불빛에 연기인 듯 희미한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라 내 혼자 마음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

8. (가)는 (나)에 비해 리듬감을 살려 내밀하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년 9월]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흉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갓으리니
 갓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안조환, 「만인사」 -

* 한민: 한가로운 백성.

9.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4년 수능]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썬
 펴고, 펼펼펼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같꼬 슬피 운
 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
 (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쿵쿵,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쫄쫄,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
 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쿵쿵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
 山潁水)가 예 아니냐.

- 작자 미상, 「유산가」 -

10. 후반부로 가면서 3.4조의 율격이 파괴되고 있다. (O , X)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년 수능]

(가)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죽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 송수권, 「지리산 삐죽새」-

(나)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김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랴 내리랴 모이랴 흠으랴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리곰 좇니느뇨

- 송순, 「면양정가」-

11. (나)와 달리, (가)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년 예비 시행]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벼들숨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지국총(至芻總) 지국총(至芻總) 어스와의(於思臥)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갈 고기 뛰노느다

<춘(春) 4>

년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청약립(靑籥笠)은 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냐
지국총(至芻總) 지국총(至芻總) 어스와의(於思臥)
무심(無心)흔 빅구(白鷗)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하(夏) 2>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닛 : 내의. '내'는 바닷가에 자주 나타나는 안개와 같은 현상.

12.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O , X)

13.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년 예비 시행]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옥도 썼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4.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년 6월 B형]

(가)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땀땀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나)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입을 믿어 딴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속미인곡」-

15. (가)와 (나)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O , X)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내가 운율에 대한 개념을 대충 확인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용어를 숙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시에서 첫 번째 문제는 보통 표현법으로 주어지는데
운율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먼저 판단해라.

**운율 문제는 너희가 해석할 필요없이
단순히 '무엇을 반복했느냐'를 찾으면 되는 문제다.**

쉽게 정답을 가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먼저 보고 판단해라.
숙지했다면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학년도 수능 A형]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뒤통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落花)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16.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조적 표현을 통해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 하고 있는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memo

1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당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의 떨어짐에 비유함으로써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 ① 제1연과 제3연의 ‘가야할 때’는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할 때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군.
- ② 제2연의 ‘봄 한철’과 제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 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군.
- ③ 제3연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는 이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수용이 자아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제6연의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려는 자아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군.
- ⑤ 제7연의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련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학년도 수능]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나

㉡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동」 -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memo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19.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1.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육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정답

memo

- 1) Ⓓ 3음보, 7.5조, 우리다 종결 어미 반복, 수미상관
- 2) Ⓓ 3음보, 7.5조, 명사형 종결어미, 여운 형성
- 3) Ⓓ 시어, 시구 반복, 통사 구조 반복, 4음보, AABA구조
- 4) Ⓓ 대체로 3음보, 음운 반복, 울림소리 사용, 문장구조 반복
- 5) Ⓓ 4음보, 4.4조
- 6) Ⓓ ○ [해설] '하얀'을 '하이얀'으로 표현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혹은 '그대인가하고'를 '그대인가고'로 음절 수를 조절하고 있다. 시적 허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에 주목하자.
- 7) Ⓓ ○ [해설] '나는 새여'가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지만 '날으는 새여'라고 표현함으로써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적 허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 8) Ⓓ ○ [해설] ○ [해설] '연기인 듯'을 '연긴 듯'으로 '모르리랴'를 '모르리로' 음절수에 변화를 주거나 '희미한'을 '희미론'으로 표현함으로써 울림소리(ㄴ, ㄹ, ㅁ, ㅇ)를 이용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9) Ⓓ ○ [해설] 이 시는 4음보에 3(4)4조를 규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운율과 구조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시에서 정형적 운율이 사용되었다고 하면 음보율과 음수율을 확인해 보자. 혹은 좀더 파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고가 가능하다. '정형적 운율을 사용했다면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지 않을까? 즉 시행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를 푸는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다.
- 10) Ⓓ ○ [해설] 초반에 유지되면 3.4조의 울격이 후반으로 가면 '층암 절벽상의(6), 폭포수는 팔팔(6)' 등 음수율이 파괴되는 현상이 보인다. 앞서 설명했지만 3.4조냐 7.5조냐는 수능에서 중요하지 않다. '운율이 규칙적이냐 규칙적이지 않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11) Ⓓ X [해설] (가)와 달리 (나)에서 4음보율 즉 정형적 운율미를 느낄 수 있다.
- 12) Ⓓ ○ [해설] '이어라, 이어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따위의 여음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13) Ⓓ ○ [해설] 4음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14) Ⓓ X [해설] 행의 마지막에 명사나 명사형 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15) Ⓓ X [해설] (가)에는 '형님, 이에, 시집살이' 따위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지만 (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 16) Ⓓ ③ [정범T 해설]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통해서 영탄법을 확인할 수 있고, 청자가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독백이라고 볼 수 있다. **어휘 혼동에 주의하자. 독백은 혼잣말, 고백은 진술한 말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극한의 상황에서 낙담하는 자조적 어조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하룻하룻'은 의태어다. 또한 내용상 경쾌한 분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확립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다. ④ 감각적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하지만 '낙화'를 통해서 불변성이 아니라 가변성(변화)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매우 쉬운 문제였다. 하지만 반복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선지를 많이 선택했다. '나의 사랑, 나의 결별'을 근거로 이 선지를 선택했으나 동일하지도 않으며 (유사하다) 문장 형태의 반복이 아니라 시구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복은 반드시 무엇을 (시어? 시구? 시행?) 어떻게 (동일하게? 유사하게?) 반복하는지 확인하자.**
- 17) Ⓓ ④ [정범T 해설] 낙화를 통해 '열매 맺는 가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새로운 자아를 확립해 가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이별이 화자에게 방향, 회한, 상실 따위로 다가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위권이라면 선택지들 사이의 모순 관계도 확인해 보자.**
 [오답 풀이] ① 내적인 방향 즉 내적 갈등은 없다. 오히려 영탄법을 사용해 때를 아는 이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② 지나간 사랑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③ 밑줄㉠ 아래를 보면 '녹음과 가을을 향하여'를 통해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차 있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 ⑤ '샘터에 물 고이듯'은 화자의 성숙을 비유한 표현일 뿐이다.
- 18) Ⓓ ② [정범T 해설] '봄 한철'은 청춘기의 뜨거운 열정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낙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의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둘을 서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답 풀이] ① '가야할 때'는 낙화를 나타낸 말로써 자아를 찾게 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③ '결별'을 '축복'

memo

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긍정적 의미와 변화를 수용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④ '헤어지자'라는 청유형 문장을 통해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보기>를 통해 세계와의 관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내 영혼의 슬픈 눈' 바로 뒷줄에 '성숙하는'을 통해 성찰과 새로운 자아상 확립을 확인할 수 있다.

19) ㉠ ③ [정범T 해설]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켰다는 건 수미상관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수미상관은 작가가 처음과 끝을 반복하려고 하는 의도만 보이면 인정한다. 수미 상관은 ① 강조 ② 운율 ③ 형태적 안정감 ④ 여운 등의 효과를 유발한다. (75%의 선택)**

[오답 풀이] ① (나)는 '활자와 나의 영'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공간과 관련성이 없다. ② (가)에서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는 의인법이 아니라 활유법으로 봐야 한다. (나)에서는 1연에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를 통해 의인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는 청자가 드러나지 않았다. (나)에서는 2연에 '벗이여'라는 것을 통해 청자를 확인할 수 있고 화자가 벗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⑤ 역설과 반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20) ㉠ ② [정범T 해설] **시 속에 사용된 모든 사물 및 자연물은 화자와 관계를 갖는다. 그것은 화자와 동일시 된 대상일 수도 있고, 상반된 대상일 수도 있으며 화자에게 어떤 정서를 유발하는 대상일 수도 있다.**

'늘어선' 것은 고층 빌딩이며 화자의 내적 갈등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신호를 슬프게 느끼고 있는 화자의 반응이다. ③ 거리를 낯설게 느끼고 있는 화자의 반응이다. ④ 군중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화자의 반응이다. ⑤ '차단한'은 '차가운'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화자는 도시 문명에 차가움 혹은 냉혹함을 느낀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이 어휘에 주석이 나와 있지 않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등불'이란 시어는 화자에게 방향을 유발하고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 비인 하늘(공허함)에 걸려있는 것이므로 차단한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었다면 대처가 가능했던 선택지다.

21) ㉠ ② [정범T 해설] 1연에 화자는 활자와 달리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연에 벗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문맥상 자유를 말하지 않고 안정 속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마지막 연에서 벗은 자유를 말하지만 자신은 영이 죽어있다고 자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유'는 화자가 추구하던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3연에 화자는 '황혼, 잡초, 페인트빛, 고요함'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는다고 했다. 고요함은 <보기>를 미루어볼 때 생활 속 안정과 연결 지을 수 있다. ④ '욕된 교외'는 수식어를 볼 때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곳이다. 또한 서술어를 통해 화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공간으로 읽을 수 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할 때 이사한 지역인 서강으로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반성하고 설움과 비애에 빠져 있다.

